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주최: 대한언어학회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수업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문제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시균·이수진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 론

결혼이주여성은 성인학습자이지만 남편과 시댁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 하지 못 할뿐 모국에서 형성한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있다.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들은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소중한 모국어와 모국 문화이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깃든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보다 자부심을 느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새로 습득해야 할 문화인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기존 지식과 상충되는 정보를 접할 때 느끼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 기제와 문화적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적절한 활용과 학습자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 간 비교 문화 및 일상생활 정보제공 활용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학습자 모국어를 오류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사의 적절한 개입으로 모국어 간섭 효과는 최소화하고 학습내용 이해 도모 등 모국어의 촉진적 효과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의 모든 것이 오류만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고 또한 상대적으로 한국의 문화 정보만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에서 점차 상호 문화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문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 결혼이주여성 중 초급 1, 2단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초급1단계에서 2집단, 초급2단계에서 2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은 모국어와 비교문화 시점이 포함된 수업을 진행하고 비교집단은 기존의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수업 방식대로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시행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를 조사해 보고, 한국어 중간 평가 시험으로 수업의 유효성을 비교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배정하여 나눌 때 법무부가 정한 엄격한 사전평가에 의해 점수대별로 단계가 배정되기 때문에 같은 단계에서는 각 집단의 실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1) 1단계 집단 구성: 실험집단(10명)은 베트남 출신 학습자 8명, 필리핀 출신 학습자 1명, 중국 출신 학습자 1명으로 구성 되었고 비교집단(10명)은 베트남 출신 학습자 6명, 필리핀

출신 학습자 2명, 중국 출신 학습자 2명으로 구성 되었다. 두 집단 모두 기초 단계 15시간 수업을 이수하고 1단계로 올라온 학습자와 사전평가에서 1단계 해당 점수(11~29점)를 받은 학습자로 이루어졌고, 두 집단 각각 한국에 온 지 1개월 정도 된 학습자가 있고, 1년이 넘는 학습자도 1명씩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체류 기간이 9개월이 넘지 않는다.

(2) 2단계 집단 구성: 실험집단(8명)은 베트남 출신 학습자 5명, 중국 출신 학습자 1명, 필리핀 출신 학습자 2명으로, 비교집단(8명)은 베트남 출신 학습자 3명, 필리핀 출신 학습자 3명, 중국 출신 학습자 2명으로 구성되었고 각 집단 대부분 한국에 온 지 1년에서 2년 전후이고, 1단계 수업(100시간)을 이수하고 올라온 학습자와 사전평가로 2단계 해당 점수(30~49점)를 받은 학습자가 섞여 있다. 학습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정상 출신 국가나 체류 기간 등을 일정하게 맞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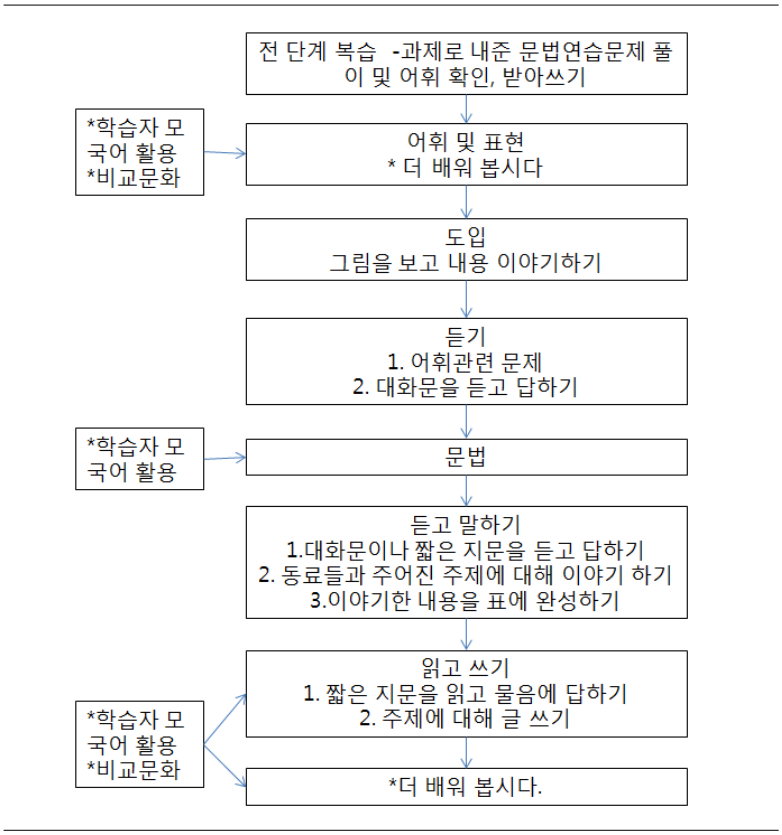
(3) 교재: 수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교재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어 초급1, 초급2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경우 다른 교재의 삽화나 번역서를 참고해 편집한 자료를 부가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인쇄물로 제공하였다.

교재 내용구성은 초급1, 초급2 모두 종합연습을 포함해 20과로 나누어져 있고, '도입-듣기-문법-듣고 말하기-읽고 쓰기-더 배워 봅시다'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2.2. 실험집단 수업 진행 내용

비교집단은 교사가 한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자가 이중 언어 사전을 활용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의 문제로 둔다. 실험집단은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어휘와 문법 설명에서 주로 활용을 한다[1]. 그리고 이중 언어 사전을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강의실에 항상 비치해 두었다. 새로운 과를 시작할 때 그 과에서 새로 나온 어휘와 표현 목록을 교사가 준비를 한다. 그리고 과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휘 설명을 먼저 하고 본 교재 내용에 들어간다(<그림 1> 참조).

1) 박경자 외(2011:124)에서도 개념체계와 언어적 인식에 있어서 제2언어 학습자가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그 개념체계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개념의 체계가 제2언어 어휘와 문법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고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여 모국어에 존재하는 개념체계와 인식을 이용하는 것이 학습을 용이하게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실험집단의 수업전개

2.3. 1단계 학습자 중간평가시험 비교 및 문화적응 사전/사후 집단 간 비교

34시간 수업 진행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진도가 나간 같은 범위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 문제로 편집한 중간평가시험을 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1단계에서 집단별 한국어 점수 차이 검정

하위요인	group	N	M	SD	t	p
어휘·문법	실험집단	10	37.20	5.69	1.149	0.266
	비교집단	10	33.90	7.08		
쓰기	실험집단	10	9.50	4.30	.950	0.355
	비교집단	10	7.50	5.08		
읽기	실험집단	10	24.30	7.27	1.050	0.308
	비교집단	10	20.80	7.63		
총점	실험집단	10	71.00	14.97	1.264	0.222
	비교집단	10	62.20	16.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대로 비교하면 ‘어휘·문법’, ‘쓰기’, ‘읽기’에서 각각 2점 이상, 총점에서도 8.8점 점수 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상 유의한 수치 차가 없었다(<표 1>). 1단계는 거의 학습입문자와 같다. 어느 단계 학습 집단보다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학습에 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두 집단 학습자 각각 이중 언어 사전을 활용[2]하는 비율도 높고, 출석률이나 과제수행도 열심히 하는 시기이다. 초기 학습 시작단계서는 학습내용의 난이도도 높지 않고 한국어 실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1단계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사전 요인별 차이 검정

하위요인	group	N	M	SD	t	p
지각된 차별감	실험집단	10	2.38	0.47	0.102	0.920
	비교집단	10	2.36	0.41		
향수병	실험집단	10	3.30	0.48	−1.033	0.315
	비교집단	10	3.53	0.53		
지각된 증오심	실험집단	10	2.35	0.61	0.00	1.000
	비교집단	10	2.35	0.34		
문화충격	실험집단	10	3.00	0.42	−0.808	0.430
	비교집단	10	3.17	0.50		
소통 및 사회생활	실험집단	10	2.76	0.31	−0.628	0.538
	비교집단	10	2.88	0.48		
모호성	실험집단	10	3.54	0.27	−0.853	0.405
	비교집단	10	3.69	0.48		

* $p<0.05$, ** $p<0.01$, ***$p<0.001$

실험연구를 시작하기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로 평균 점수 차가 거의 없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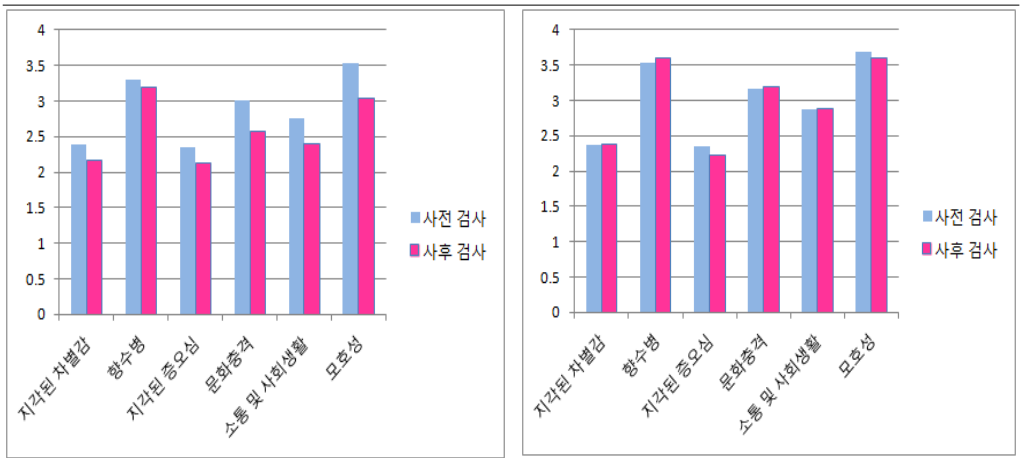
2) 모든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사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다국어 사전을 활용해 검색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졌다.

<표 3> 1단계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사후 요인별 차이 검정

하위요인	group	N	M	SD	t	p
지각된 차별감	실험집단	10	2.16	0.43	−1.163	0.260
	비교집단	10	2.38	0.42		
향수병	실험집단	10	3.20	0.45	−1.952	0.067
	비교집단	10	3.60	0.47		
지각된 증오심	실험집단	10	2.13	0.44	−0.563	0.580
	비교집단	10	2.23	0.34		
문화충격	실험집단	10	2.57	0.61	−2.398*	0.028
	비교집단	10	3.20	0.57		
소통 및 사회생활	실험집단	10	2.40	0.38	−2.444*	0.025
	비교집단	10	2.88	0.49		
모호성	실험집단	10	3.04	0.29	−2.925**	0.009
	비교집단	10	3.60	0.53		

* p<0.05, ** p<0.01, ***p<0.001

34시간 수업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를 측정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문화충격', '소통 및 사회생활'부분에서, 그리고 한국어 학습 시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즉, 그 스트레스 정도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새로운 문화인 한국 문화 가치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이나 압박감, 의사소통을 비롯해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열등감 및 교제, 소속감에 대한 문제, 그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과정 중 학습자가 느끼는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 대하여 견디는 정도에서도 모국어 활용과 비교문화학습이 노출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긍정적이다(<그림 2>).



−실험집단−　　−비교집단−

<그림 2> 1단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 사후 변화 비교 그래프

한국어 학습 과정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표 4>).

<표 4> 1단계 대응표본 t-검정

	요인	N	M	SD	t	p
1	지각된 차별감	20	2.37	0.43	1.057	.304
	후지각된 차별감	20	2.27	0.43		
2	향수병	20	3.42	0.51	.203	.841
	후향수병	20	3.40	0.49		
3	지각된 증오심	20	2.35	0.48	2.405	.027
	후지각된 증오심	20	2.18	0.39		
4	문화충격	20	3.08	0.46	2.179	.042
	후문화충격	20	2.88	0.66		
5	소통 및 사회생활	20	2.82	0.39	2.175	.042
	후소통 및 사회생활	20	2.64	0.49		
6	모호성	20	3.62	0.39	3.899	.001
	후모호성	20	3.32	0.50		

한국어 수업 실시 후, 학습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의 사전 사후를 비교 검정 시 '지각된 증오심', '문화충격', '소통 및 사회생활',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각된 차별감'이나 '향수병'에 있어서도 평균치에서 근소하게나마 사후 수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한국어 수업과정이 문화적응과 한국어 습득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4. 2단계 학습자 중간평가시험 비교 및 문화적응 사전/사후 집단 간 비교

1단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처럼 34시간 수업 후, 교재 진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를 수정 편집한 한국어 중간 평가 시험을 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5> 2단계에서 집단별 한국어 점수 차이 검정

하위요인	group	N	M	SD	t	p
어휘·문법	실험집단	8	52.00	7.60	3.776**	0.002
	비교집단	8	33.63	11.48		
쓰기	실험집단	8	12.38	5.10	1.828	0.089
	비교집단	8	8.13	4.16		
읽기	실험집단	8	15.00	3.59	1.624	0.127
	비교집단	8	11.63	4.66		
총점	실험집단	8	79.38	15.12	3.039**	0.009
	비교집단	8	53.38	18.89		

* p<0.05, ** p<0.01, ***p<0.001

2단계에서는 '어휘·문법', '총점'에서 통계 상 유의한 차이가 났다(<표 5>). '어휘·문법'영역에서는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사이에 평균점수차가 18.37점이다. 총점에서도 26점으로 큰 차이가 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평균 차이를 보았을 때 쓰기와 읽기에서도 각각 4.25점과 3.37점의 차이가 있다. 1단계보다 2단계에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 좀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낮고 출발점이 비슷한 초기 학습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학습량이 누적되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불확실하게 알고 있던 개념들이 학습자 모국어 활용으로 확실한 의미 이해와 개념 정리를 도운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6> 2단계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사전 요인별 차이 검정

하위요인	group	N	M	SD	t	p
지각된 차별감	실험집단	8	2.78	0.48	.0	1.0
	비교집단	8	2.78	0.63		
향수병	실험집단	8	3.21	0.35	−1.877	0.082
	비교집단	8	3.83	0.87		
지각된 증오심	실험집단	8	2.50	0.60	.097	0.924
	비교집단	8	2.47	0.69		
문화충격	실험집단	8	2.71	0.65	−1.128	0.278
	비교집단	8	3.13	0.82		
소통 및 사회생활	실험집단	8	2.70	0.54	−1.259	0.229
	비교집단	8	3.02	0.45		
모호성	실험집단	8	3.63	0.33	−0.455	0.656
	비교집단	8	3.71	0.40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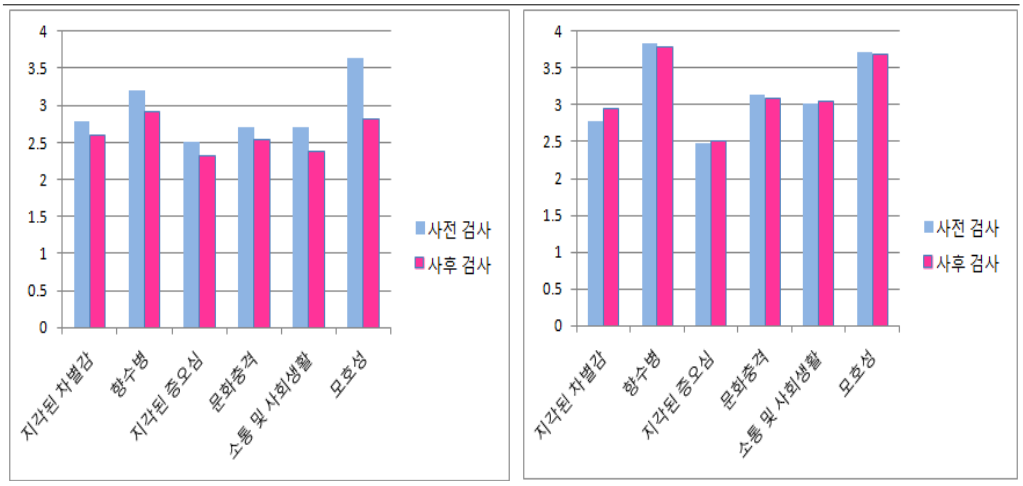
2단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실험연구 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에서 통계 수치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6>). 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 한국어 학습 시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가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단계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사후 요인별 차이 검정

하위요인	group	N	M	SD	t	p
지각된 차별감	실험집단	8	2.60	0.48	−1.384	0.188
	비교집단	8	2.95	0.53		
향수병	실험집단	8	2.92	0.35	−2.983*	0.010
	비교집단	8	3.79	0.75		
지각된 증오심	실험집단	8	2.31	0.59	−0.683	0.506
	비교집단	8	2.50	0.50		
문화충격	실험집단	8	2.54	0.56	−1.805	0.093
	비교집단	8	3.08	0.64		
소통 및 사회생활	실험집단	8	2.38	0.38	−2.950*	0.011
	비교집단	8	3.05	0.52		
모호성	실험집단	8	2.81	0.46	−4.255**	0.001
	비교집단	8	3.69	0.36		

* p<0.05, ** p<0.01, *** p<0.001

사전 비교검정 시 유의한 차가 없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서 두 집단 간 '향수병', '소통 및 사회생활'영역과 한국어 학습 중 학습자의 애매모호함 견디기 정도를 나타내는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서 유의한 차가 생겼다(<표 7>).



−실험집단 −　　−비교집단−

<그림 3> 2단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 사후 변화 비교 그래프

<그림 3>을 보면 실험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치가 사전평가에 비해 낮아졌고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서는 2.81로 전체평균 3.42보다 더 낮아져 애매모호함을 잘 견디는 쪽으로 막대그래프가 내려가 있다. 반대로 비교집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사전과 사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2단계 집단에서도 1단계처럼 한국어 학습 과정 자체가 문화적응과 한국어 습득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2단계 대응표본 t-검정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t	p
1	지각된 차별감	16	2.78	0.54	.000	1.000
	후지각된 차별감	16	2.78	0.52		
2	향수병	16	3.52	0.72	2.236	0.041
	후향수병	16	3.35	0.72		
3	지각된 증오심	16	2.48	0.62	1.232	0.237
	후지각된 증오심	16	2.41	0.54		
4	문화충격	16	2.92	0.75	1.576	0.136
	후문화충격	16	2.81	0.64		
5	소통 및 사회생활	16	2.86	0.51	1.690	0.112
	후소통 및 사회생활	16	2.71	0.56		
6	모호성	16	3.67	0.36	3.684	0.002
	후모호성	16	3.25	0.60		

한국어 수업 진행 후, 학습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의 사전 사후를 비교 검정 시 '향수병',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2단계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 후, 위의 2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고 모호함을 잘 견디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2단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에서는 변화가 없이 전과 후가 같지만 다른 영역 모두에서 수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균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어 수업 자체가 학습자에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중 '문화충격'과 '소통 및 사회생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단계에서는 '향수병'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두 단계 간 스트레스 항목에 차이가 난다.

1단계 학습자는 대부분 한국 체류기간이 평균 9개월을 넘지 않고 결혼초기 및 임신 중인 학습자가 많아 새로운 음식과 생소한 한국 문화 가치에 적응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친척 및 이웃 간 교류나 소속감에 있어 스트레스가 많을 시기이다. 그래서 '문화충격'이나 '소통 및 사회생활'영역에서 변화의 양

상이 현저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단계 학습자는 대부분 1단계 학습자보다 한국 거주기간이 더 길며 상대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수월해 1단계 학습자가 갖는 문제에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전후 학습자가 많은 2단계는 학습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이면서 고향 방문의 욕구를 겉으로 자주 표출하는 시기이다. 상당수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출산 후 아이가 돌을 지날 때쯤 자녀와 함께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정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초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기 바쁘고 출산을 하며 분주히 지내다 산후 심리변화와 자녀양육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층 더 커졌을 것이며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장기간 친정 방문을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 향수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 과정 중 출신 국가는 다르지만 자신과 비슷한 감정과 상황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만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스트레스 수치가 향수병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인 편견이나 차별감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를 더 알아가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잘해 갈수록 전에는 모르고 넘어간 미세한 차이를 더 감지하게 되므로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일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무시, 편견, 차별의식에 대해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보다는 한국어 수업시간에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시각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 이점을 감안할 때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문화와 모국어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습자의 현재 상황(한국 문화적응 양상)을 파악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제2언어 학습에서 모국어를 학습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국어를 학습자로부터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모국어를 이용함으로써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연구되었다(박경자 외, 2011:122).

그리고 Brown(2001, 2007)은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전략적 기법을 소개하면서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교사에게나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도록 고무하고, 단어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모국어로 때때로 번역해보도록 허용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박시균(2010)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모국어의 음운체계를 이해한다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발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발음은 모국어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이므로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대조분석을 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오류수정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가진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배재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최대한 목표언어인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했을 때, 학습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목표언어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에 있어서 저개발국가에서 온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만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다[3]. 한국인

3) 황인교(2007)는 결혼이주여성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과 모국의 사회적 거리, 학습

이 외국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인지하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듯이 결혼이주여성도 자신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잊지 않고 거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해가는 이중 언어 화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 교육 시, 비교 문화 즉 상호문화이해 교육과 초급 학습자의 모국어의 적절한 활용은 긍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연구에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한국어 수업 과정 자체가 학습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습득 시 모호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어 수업 과정이 한국어 습득은 물론 문화적응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일반 한국인들의 시각과는 달리 한국어 수업시간에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시각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문화와 모국어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습자 현재 상황(한국 문화적응 양상)을 파악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각 개인차에 대해 교사는 민감하며 그들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장점이 단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61. No.2. 5-32.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Vol.-N0.18

김은미 외. 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김이선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 개발원

박경자 외. 2011. 언어교수학. 박영사.

박시균. 2010. KBS 표준 한국어 보급 방안과 음성 분석에 대한 연구.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원.

황인교.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문화. 이중언어학 Vol. 35. 409-437.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원리에 의한 교수), 2nd ed. 권오량 외 역(2003). Pearson Education Korea.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5th ed. 이흥수 외 역(2011). Pearson Longman.

발표자: 박시균,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010-8708-4285, seegyoon@kunsan.ac.kr
이수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졸업,
018-633-0021, hihiker@hanmail.net

자 문화의 한국 내 허용 여부가 주요 변인이 되며,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로 한국과 모국의 관계, 그에 따른 한국 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소통을 도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